

시온 주보

제2530호
2024년 11월 17일(나해)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리스도

니콜라스 마아스
(Nicolaes Maes, 1634-1693)
1652-1653, 캔버스에 유채, 206×154cm
내셔널 갤러리, 영국 런던



입당송 |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 오리라.

제1독서 | 다니 12,1-3

화답송 | 시편 16(15),5와 8.9-10.11(◎ 1참조)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다.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

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 히브 10,11-14.18

복음환호송 | 루카 21,36 참조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복음 | 마르 13,24-32

영성체송 |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오늘을 위한 그날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연중 시기의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가난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억압당하거나 소외된 이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등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아마도 현재의 관점에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사지로 내몰린 이들도 속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난’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 때문에, 하느님께서 세우신 조화로운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이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연중 제33주일인 오늘의 말씀은 종말과 심판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종말을 어둡고 두려운 이미지 안에서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복음 말씀이 그렇습니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마르 13,24-25) 마치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모두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종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예언서는 종말에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다니 12,2)고 전합니다. 이것은 종말 때의 심판에 관한 설명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영광과 수치는 더 이상 공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에서의 선택이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때입니다. 언제일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날을 위한 준비는 일상에서의,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종말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태도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충실한 이들은 그날이 언제 오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선을 선택하는 이들은 심판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종말에 관한 말씀은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다가올 언제가 아니라 오늘을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선택으로, 지금의 선택으로 꾸며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죽음이라는 고통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종말과 심판은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기쁨의 날을 깨어 기다리는 자세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리스도

작가는 성경의 장면을 강렬한 화풍, 따뜻한 붉은 톤의 색채, 빛과 그림자의 강한 대비를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기념하는 오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 성화를 바라보며, 가난한 이들 역시 어린아이들처럼 작지만 소중한 존재로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혀만 남았다고?



정승제 안토니오 | 수학 강사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제 이름 앞에는 ‘일타강사’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 강의를 듣는 학생이 늘어났고 그에 비례하여 수입도 늘게 되었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 과분하게 받고 있다는 생각에 ‘기부’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전 기부를 해봤어야 알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성당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톨릭과 관련된 기관에 기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분은 무심히 “까리파스로 연락 한 번 해보세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의 기부는 ‘까리파스알 코올회복센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알코올회복센터는 알코올 의존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곳인데 재정적인 문제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홀로 설 수 없는 이들이 거리로, 유흥 속으로 내몰릴 위기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 마침 주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음에 기뻐한 제가 오히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보내셔서 간 것뿐인데 이후, 수녀님은 틈날 때마다 저에게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수도원에서 만든 빵을 들고 사무실에 오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은 저의 성인을 언급하시면서 “안토니오 성인이 꼭 선생님 같았어요.”라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때까지 저는 저의 성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유아세례 때 어머니께서 붙여주신 세례명이 ‘안토니오’일 뿐, 저에게 성인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저와 같았다니, 성인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인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

고, 어찌나 설교를 잘했는지 가는 곳마다 사람이 구름처럼 몰렸다고 합니다. 성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이단자가 회개하여 ‘이단자들을 부수는 망치’, ‘황금 혀’라 불렸다고요. 심지어 묻힌 지 30년 후에 시신이 발굴됐는데 오직 혀만 썩지 않고 남아있었고, 이 혀는 이탈리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당에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혀만 남았다고?’ 그 사실을 안 순간, 온몸에 소름이 쭉뚝 돋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말로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하며 사는 것도 성인의 도우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전하는 것은 수학만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인을 닮아 제 혀에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담아야 ‘안토니오’라는 세례명을 쓸 자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인처럼 혀만 남는 기적까지는 아니어도 혀를 함부로 쓰는 사람은 아니어야 할 테니까요.

나중에 이탈리아 파도바에 가면, 꼭 한 번 성인의 혀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제 혀가 성인의 혀를 닮아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고 싶거든요.

글구성 서희정 마리아작가

한
낫
목
상

공평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당신 진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 -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마르 16,4)



이영제 요셉 신부 | 문화홍보국 부국장

예수님께서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끝까지 그분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부여잡고 차가운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여전하기에, 그래서 그분의 처참한 시신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기에,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합니다. 그분의 시신을 아마포에 싼 다음, 돌무덤에 모십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던 예수님. 그분을 더 이상 뵈 수 없습니다. 해가 저물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분 시신에 향유를 발라 드리기 위해 몇몇 여인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 여인들은 향료를 들고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섭니다. 누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러줄 수 있을까? 여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새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여인들의 눈 앞에 펼쳐집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미 굴러져 있습니다. 놀란 가슴을 뒤로 한 채, 황급히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없고 하얀 긴 옷을 입

은 젊은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쓰러집니다. 서로의 몸에 기대어 무서움에 떨고 있던 여인들에게 그 젊은이가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마르 16,6)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르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마치 신문 기사를 써 내려가듯 정확하게 부활의 장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그분의 빈 무덤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빈 무덤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빈 무덤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빈 무덤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지 않으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로 추측할 수 있는 흰옷을 입은 젊은이의 말이 이를 보증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비록 젊은이가 전한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달아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시어 당신이 죽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vs 로마 황제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루카복음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을 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soter*)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루카 2,11) 이 구절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루카가 예수님을 ‘구원자’이며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달리 마태오복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임마누엘’로 고백하지만, 구원자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루카복음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첫째, 루카에게는 제정 초기의 로마 황제들에 대한 정보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는 황제의 재임 연대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루카 2,1),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사도 18,2) 등등을 보면 그렇습니다. 둘째, 제정 로마 초기의 특징 가운데 ‘황제 숭배 사상’이 중요했다는 점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태양신으로 여겼던 것이나 헬레니즘 문화에서 임금을 신격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제정이 시작되기 전, ‘율리우스 시저’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같은

위대한 장군들이 신격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초대 황제에 오르면서 황제 숭배 사상이 본격적으로 국가의 주요 통치 수단으로 등장합니다. 황제의 위대함을 알리는 프로파간다로 사용된 것이지요.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진,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신전이 좋은 예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루카는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루카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황제 숭배 사상은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황제 숭배 사상에서 로마 황제가 ‘구원자’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튀르키예 지역인 프리에네(*priene*)에서 발굴된 비문을 보면, “그녀(여신)가 그(아우구스투스)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구원자로 보내준 것처럼...”이라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에서 제시한 물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루카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대 배경을 알리기 위해 로마 황제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로마 황제는 구원자로 선전되고 있었죠. 따라서 루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함으로써 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인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마 황제를 구원자로 포장하고 현혹하는 이들에 맞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열한 번째 인터뷰!

주일학교, 함께라서 좋아!

12지구 잠원동성당에서 주일학교 활동을 함께하는 모자(母子)를 만나보았습니다.

편집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사목부서 미디어부



자모회
이근정 에밀리아



중학교 3학년
심우형 다니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이 에밀리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6학년과 중등부 3학년, 두 아이를 둔 이근정 에밀리아입니다. 중고등부 자모회, 복사 자모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영성체반 교리교사도 하고 있습니다.

심 다니엘 저는 잠원동성당 중고등부에서 복사단과 미사 반주봉사를 하는 심우형 다니엘입니다.

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심 다니엘 하느님 안에서,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에밀리아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중고등학생인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를 보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부딪침을 겪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같은 공동체에 함께 있다는 건 우리가 지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가족과 함께 활동해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심 다니엘 모르는 어머니들께서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세요. 관심은 다다익선이니까 좋은 거죠! 하지만 엄마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심우형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 활동은 무엇인가요?

심 다니엘 무엇보다 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사는 제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찾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에밀리아 주일학교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요! 특히 아이가 선배들과 선생님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매년 집에서와는 다르게 매우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함께 있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선배들을 보고 배우며 신앙을 전해 받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신앙생활이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에밀리아 얼마 전에 아이가 성경 구절에 대해 질문했는데, 시원한 답변을 주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성서 못자리에서 나온 책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매우 기뻐했어요. 아이에게 잘 대답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신앙생활이 어느새 제게도 폭 스며들었어요. 또, 저희 가족은 신앙생활을 하며 배우고 느낀 점들을 자주 나누는 편이에요. 아이의 궁금함이 제가 경험한 것에서 풀릴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의 신앙에서 제가 배울 때도 많아요. 덕분에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져서 좋아요.

주일학교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심 다니엘 성당에 관심 없던 친구들을 선생님들에게 인도해 드리고 있어요. ‘부캐’(부캐릭터)로는 잠원동성당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하)

이 에밀리아 비유하자면,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작은 별 하나예요. 그중에서도 저는 낮에 뜬 별이었으면 좋겠어요. 밤하늘의 반짝이며 빛나는 별은 아이들과 매주 함께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나요?

이 에밀리아 아이가 자랄수록, 아이 안에 있는 엄마의 자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찾아가는 청소년기에는 특히나요. 그렇게 점점 작아지는 제 자리를 하느님께서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가 하느님과 계속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사와 주일학교에 기쁘게 가는 다니엘, 정말 고마워!

심 다니엘 올 한 해도 주일학교 안에서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2008년 작, 감독 '마리아나 체닐로'

영화칼럼

영화 '노라 없는 5일'

떠나보내고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 그동안 업로드된 <비하인드 영화칼럼>을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1833년, 영국 시인 아서 헨리 핼럼은 22살의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핼럼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시인인 앨프리드 테니슨은 장장 17년에 걸쳐 그를 기리는 애가를 썼습니다. 1850년 《A.H.H.를 추모하며》라는 제목으로 익명 출간된 이 장편시에서 특히 27편에 나오는 구절이 인상적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로 반아들이리, 무엇이 닥치든/ 나는 가장 슬플 때 깨달으니/ 사랑하다 헤어지는 아픔이 낫다네/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는 것보다

보통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아가며 부대끼는 동안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내 뜻대로 왜곡해서 바라보았던 나에 대한 상대방의 진심 혹은 상대방을 향한 나의 진심을 그 상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사랑'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을 때 후회와 미련의 감정이 가장 크게 밀려오나 봅니다. 그 후회와 미련이 '그래도 사랑하길 잘 했다.'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영화 <노라 없는 5일>은 주인공 호세(페르난도 루한 분)가, 자신의 집 건너편에 살고 있는 전 부인 '노라'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은 이후 겪게 되는 5일을 보여줍니다. 노라의 장례식은 여러 부분에서 빼격거립니다. 우선 유대교 신자인 노라의 장례를

유다식으로 치루어야 하는데 파스카 축제일과 안식일이 연달아 겹치는 바람에 당장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됩니다. 또 노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이를 씻을 수 없는 죄로 여기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유다식 공동묘지에 온전히 묻히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무엇보다 노라를 대하는 전 남편 호세의 태도가 장례를 치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호세는 노라가 자신에게 골탕 먹이려는 속셈으로 미리 파스카 축제일과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장례를 온전히 치를 수 없도록 목숨 끊을 날을 정했다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호세는 자신의 지인이자 노라의 오랜 정신과 주치의가 노라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렇게 노라의 장례를 억지로 치르는 호세가 결국 '자신을 향한 노라의 진심'과 '노라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함께 깨닫는 과정을 그립니다.

위령 성월은 가까이 함께 지내며 자주 마주해서 익숙하게 다가오는 존재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다듬는 시기가 되어줍니다. 익숙한 존재들을 향한 그 익숙함이 상쇄되는 순간, 곧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은 채 지내온 시간을 후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화 <노라 없는 5일>은 익숙하게 다가오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부재하게 될 때를 미리 떠올리며, 그들을 이전보다 더욱 소중하게 품어주고자 하는 다짐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오늘(11월 17일)은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7 서울 WYD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개설

세계청년대회 역사와 준비기도문 등을 비롯한 각종 WYD 관련 정보는 물론, 목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에 따른 봉헌 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27년 11월 19일 손성재 야고보 신부(50세)
- 2016년 11월 20일 김대균 파트리치오 신부(77세)
- 2016년 11월 21일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75세)
- 2019년 11월 18일 박성구 요셉 신부(70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위령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서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기도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교구청 알림

명동대성당 혼인미사 성가단 단원 모집

모집 파트: 테너 0명 / 문의: 02)774-1784

지원 자격: ①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혹은 예비신자) ② (금~일) 및 공휴일에 있는 혼인미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③ 성악전공 4학기 이상 수강한 만 29세 미만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세부사항은 명동대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공지사항 참고

20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정시)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수도자, 만학도로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원서접수: 12월31일(화)~2025년 1월3일(금) 인터넷접수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교육명: 상호의존관계에서의 회복, 기록한 하느님 말씀 읽어보기, 기타배우기, 우울과 불안 강좌 등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제68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때, 곳: 11월21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제: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2024 토요 성도 신심 미사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내용: 참된 신심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매주(토) 15시~16시, 가톨릭회관 205-2
2025 루르드 8월 피정: 8월15일~22일(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영성 아카데미

시복시성기원미사(204회) 전례봉사자 모집

1)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 달의 하느님의 중 '홍창룡'
때, 곳: 11월19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2) 전례봉사자 모집
대상: 매월 첫째, 셋째주(화) 오전 미사 참석 가능한 신자분(62세 이하)
활동: 순교자현양 미사(월2회), 순교성월 행사 전례봉사 등 /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11월1일(금)~22일(금) / 3개월 수업(12월~2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겨울학기	실기전문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별	그레고리오성가·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1443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1월1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분당': 함흥교구 영흥 본당
문의: 02)727-2420

이른어른이(예비 청년) 생명 피정

대상: 만 19~20세 / 문의(신청): 02)727-2351
때: 2025년 1월14일(화) 13시~15시(수) 16시
곳: 성 앵베르센터 / 모집기간: 2025년 1월3일(금)까지 신청
회비: 10만원 / 주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효진 개인전: 1전시실
전용혜 개인전: 2전시실
하귀분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20일(수)~28일(목)

2024 생명이치중세미나2 참가자 모집

주제: 생명의 결정과 마침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때, 곳: 11월23일(토) 14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대상: 가톨릭신자 신청순 250명(회비 없음)
강사: 박은호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문의(사전접수): 02)777-2013 / 홈페이지(www.clas.or.kr) 온라인 접수

<명동 겨울 축제> 관련 공개입찰 유찰에 따른 재공고

문의: 02)727-2047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참조

1) '라디오 공개 방송 및 미디어 파사드 설치와 운영' 건
12월24일(화)~25일(수) 중 진행될 '라디오 공개 방송 및 미디어 파사드 설치와 운영' 건을 공개입찰합니다

2) 'LED 포토부스 설치, 관리' 건
11월30일(토)~2025년 1월6일(월)까지 진행될 'LED 포토부스 설치, 관리' 건을 공개입찰합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때, 곳: 2025년 4월24일~5월5일, 성모발현지
 회비: 520만원 / 문의: 010-7374-3217

12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12월26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대림 피정 '그리스도인의 마음챙김과 영적돌봄'

몸과 마음의 치유와 영적 회복을 위하여 / 회비: 6만원
 때, 곳: 12월7일(토) 10시~17시,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전진상영성센터

성모술숯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월 둘째주(금~일) 2박3일 12월13일~15일
 ·2025년 1월10일~12일·2월7일~9일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14동작지구 성령새신봉사회 낮 피정 / 문의: 010-3341-1354

때, 곳: 13시~16시, 동작동성당 3층 대성전

11월19일(화)	백준호 신부	12월17일(화)	김재덕 신부
-----------	--------	-----------	--------

11지구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5분(미사 19시), B1 경
 환당(주차 가능) / 문의: 010-9518-1601 (문자)

11월22일	이상기	11월29일	치유은사 대피정
--------	-----	--------	----------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1월19일	성시간·연도·위령미사	11월26일	이상기 회장
--------	-------------	--------	--------

아람 성지순례(피아골) / 문의: 010-3712-8119

2025년 피아골 피정 소록도	2월25일~26일, 3월25일~27일
홍성남 신부와 일본 도쿄	3월10일~14일

예수회 영신수련 대침묵 피정(이나시오 영성연구소)

문의(접수): 02)3276-7794(ciskorprov@gmail.com)

12월28일(토)~2025년 1월6일(월)	예수마음배움터
1월16일(목)~25일(토), 2월5일(수)~14일(금)	수원 말씀의 집

2025년 이탈리아 순례(작은형제회)

내용: 로마, 아시시 및 프란치스칸 성지
 문의: 010-9704-9495(www.terrasanta.kr) 작은형제
 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78차	3월19일(수)~31일(월) / 회비: 550만원
79차	6월10일(화)~22일(일) / 회비: 560만원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때: 10시~14시(미사) / 문의: 031)952-6324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 피정·미사	12월7일(토)
매월 13일 파티마 성모님 발현 피정·미사	12월13일(금)
매주 목요일 기도 피정	강사: 이한택 주교

골롬반 청년 대림 피정(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대상: 23세~34세 신자 / 문의: 010-5033-9302
 때, 곳: 12월14일(토) 10시~17시, 성골롬반외방선
 교수녀회 / 회비: 1만원(현장 납부, 점심식사 포함)
 접수: <https://bit.ly/골롬반청년대림피정12>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연말연시 12월30일~2025년 1월2일(한라산·해님
 이·해돋이), 생태순례 12월7일~9일·12월13일~15일
 ·3월15일~17일, 한라산 눈꽃산행 1월17일~19일
 ·1월23일~25일·2월8일~10일·2월14일~16일·2월
 22일~24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3월1일~4일·3
 월9일~12일 /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한라산 눈꽃산행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연말연시 12월29일~2025년 1월1일(한라산·해님
 이·해돋이), 12월6일~8일·12월14일~16일·3월1일
 ~3일·3월8일~10일, 한라산 포함 1월11일~13일·1
 월16일~18일·1월20일~22일·1월24일~26일·2월1
 일~3일·2월7일~9일·2월15일~17일(제주TS) / 문의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차	12월27일(금)~2025년 1월4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3차	1월24일(금)~2월1일(토)	
제14차	2월14일(금)~22일(토)	

노들담수녀회 청년 대림 묵상 기도 '별'헤는 밤

회비: 2만원 / 문의(접수): 010-3930-6730

서울	11월27일부터 매주(수) 19시30분~21시(총4회), 노들담 교육관(북촌로 54) /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10명
수원	11월30일부터 매주(토) 15시~16시(총4회), 노들담유 치원(가장로 709) /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녀 10명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2월21일(토)~22일(일), 2025년 2월14일(금)~15일(토)
3박4일	11월28일(목)~12월1일(일), 12월5일(목)~8일(일)
8박9일	12월26일(목)~1월3일(금), 1월6일(월)~14일(화)
40일	12월14일(토)~1월22일(수)

성지순례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탐방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국내	12월14일~17일(대전 23차), 2025년 3월1일~4 일(전주 11차·광주 4차), 4월23일~27일·7월5일 ~9일(울릉도·독도) / 출발: 가톨릭회관 후문
베트남 성지	2월5일~10일, 다낭·호이안·후에·바나힐
동유럽 성지	5월3일~18일, 체코·폴란드·메주고리에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12월6일 10시~15시30분
단식 피정	11월25일~29일(4박5일)
대침묵 피정(요한묵시록)	12월11일~14일(3박4일)
대림 피정	12월3일·12월10일·12월17일 매주(화) 10시~16시
송년 피정	12월31일~2025년 1월1일(1박2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 위탁) / 개인 피정 가능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문의: 010-4444-1264
 강사: 신동원 신부(성령쇄신 장년
 담당, 체나콜로) / 점심 무료 제공
 때, 곳: 11월20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포네티 글방(예수고난회)

하느님을 향한 책읽기와 글쓰기, 비대면(Zoom) 모임
 때: 매월 둘째·넷째주(수) 20시~22시 / 010-9503-1127
 대상: 40대 초반 이하의 심신 건강한 미혼 남녀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12월10일~24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도미니코수도회 대림 특강(미사 포함)

때: 11월27일~12월18일 매주(수) 19시30분 / 회비: 5만원
 곳: 도미니코 수도원(강북구 삼양로139가 나길 16-8
 / 4.19민주묘지역 근처) / 문의: 010-5075-3513

서강대학교 영성 특강 / 문의: 02)705-4711

주최: 단테 신곡, 연옥편 '칠층산 이야기-칠죄종과 칠극'
 때, 곳: 11월25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서강대
 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강사: 김산준 신부(예수회)

가톨릭성서모임·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

그룹형 성경통독-혼자서 읽기 어려운 성경, 함
 께 읽어보세요 / 대상: 성경통독을 원하는 분
 때: 민수기반 (월·화·수·일) 20시 비대면(12월경부
 터 시작), 요한복음서반 (월·화·수·일) 20시 비대
 면(12월경부터 시작) / 문의: 02)824-4363
 접수: 가톨릭성서모임 홈페이지(biblemove.com)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2월2일~13일 / 전형일: 2025년 1월10일
 곳: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 작곡), 합창지휘전공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	--

제25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cpbccamp.com)

미국	2025년 1월15일~2월4일(3주) / UCLA·UC버클 리·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 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파인	2025년 1월11일~2월4일(4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 수업, 마나기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벨칸토 성악 교실(국악성가연구소)

성가·가곡, 초보자 환영 / 010-2252-2974 강신옥
때, 곳: (금) 10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분 거리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하는 남녀 평신도
11월30일까지 접수 / 010-5399-3371, 010-9572-8282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첫영성체 받은(2025년 예정) 초2~초6 가톨릭 신자 /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오디션: 11월24일(일) 13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당실 / 11월21일(목)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010-2650-8014 cpbc소년소녀합창단

제12기 청년해외봉사단 모집

때: 2025년 2월8일~16일(8박9일 제주항공)
곳: 필리핀 바그나 / 인원: 선착순 15명
회비: 항공료(본인 부담), 일체비용 지원
11월30일까지 이메일(goons@hanmail.net) 접수
문의: 02)335-3332 사무국, 010-5449-6448
주최: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1월21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새천년복음화학회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1월21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때, 곳: 11월18일(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11월25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주례: 오기백 신부(골롬반회) / 문의: 02)926-1217
모임: 담당 곤잘로 신부(성소 관심자)
때, 곳: 11월23일(토) 16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누구나 참석

안내

무지카사크라서울 합창단 40주년 대림성탄음악회

때, 곳: 12월6일(금) 20시, 목5동성당 / 전석 초대
지휘: 신기호 신부 / 문의: 010-9464-0680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선릉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마니파카어린이합창단 제26회 정기연주회

서울대교구 어린이 합창단 '마니파카' 창단 30주년 기념 제26회 정기연주회 / 문의: 02)338-7830
때, 곳: 11월21일(목) 20시, 명동대성당 / 전석 1만원

익산 성글라라스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플자비의수녀회)

생애 심리치료 및 개인상담(무료)

대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 선착순 10명
때, 곳: 11월23일(토) 14시~16시, 영원한도움의 성모수도회 연남동(주최) 상담실(홍대 근처)
문의(강의·상담): 010-3703-5904 경혜자 수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바보의나눔 유튜브채널 '러브온탑'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을 담은 '탑 쌓기 챌린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매주 새로운 스타들의 러브온탑,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러브온탑'을 입력하세요
(www.youtube.com/@러브온탑) / 협찬 문의: 02)727-2507(fund@babo.or.kr) 바보의나눔 모금홍보팀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11월26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직원모집

직원·봉사자 모집(성가복지병원)

분야: 영양과 조리사 0명 모집(2교대), 의료봉사자(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 / 문의: 02)940-1503

강일성모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간호사, 조리원, 요양보호사 모집 / 02)426-9663
자세한 내용은 요양원 홈페이지 채용 안내 참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 문의: 02)740-9707, 8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재)2027서울WYD조직위 직원 모집

업무: 사무행정 및 봉사자 관리 1명
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이메일 문의
11월30일까지 이메일(wydseoul@seoul.catholic.kr)
접수 / 홈페이지(wydseoul.org) 내 '채용공고' 참조

서울대교구청 정의평화위원회 직원 모집

인원: 교구 사무원 1명(계약직) /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분, 교회의 사회적 역할 및 사회 교리에 관심이 있는 분 / 업무: 교회 문헌 자료 작성 및 조사연구, 사회사목국 행정 업무 등
11월24일(일)까지 이메일(ac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이메일로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경영관리국	재무회계
편집국	북디자인
프리에르 사업팀	웹·콘텐츠디자인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호준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이 안젤로 신부(성소부)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11월24일(일) 10시~15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1월22일(금)~24일(일) 14시 / 그 외 전화	수녀원(보문동)	010-9353-1773 (미리 연락)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주님과 함께

2025년 탁상용 말씀 달력



성바오로딸수도회
바오로딸 | 368쪽 | 1만원
문의: 02)944-0944

교회 전례력에 따른 성경 구절과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탁상용 달력이다. 책상 위 말씀달력의 인도에 따라 매일 그날의 전례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을 묵상하다보면, 하느님 말씀에 담긴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신간

희망의 순례자들

2025년 탁상 달력



노정원 그림
바오로딸 | 31쪽 | 1만7천원
문의: 02)944-0944

2025년도 탁상 달력이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2025년 희망의 해 주제에 맞추어 출간되었다. 희망의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주인공으로 그려 넣어 서로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한 해를 보내도록 도와준다.

신간

2025년
말씀과 함께 수첩

성바오로딸수도회
바오로딸 | 128쪽 | 5천원
문의: 02)944-0944

'말씀과 함께' 2025년도 수첩이 출간되었다. 달력, 연간·월간·주간 계획·성경 통독 계획표 등 꼭 필요한 구성만 담았다. 내지 그림은 생태계의 회복을 희망하며, 환경보전 지역을 중심으로 표현한 일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는 메리골드, 블루그린, 레드벨벳 세 가지 색상으로, 옵션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신간

마리아는 길을 떠나



에르메스 론키 지음
바오로딸 | 124쪽 | 1만원
문의: 02)944-0944

이 책은 '주님 탄생 예고'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등 대림 시기의 주요 복음을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표현들로 풀어낸 묵상서다. 삶의 격랑 속에서도 '근원적으로 승자인 하느님께 미래를 거는 것'이 참된 희망임을 알려주며, 나아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하느님을 나르는 사람이 되자고 초대한다.

신간

신앙의 중심에 있는
생태 환경

데니스 에드워즈 지음
도서출판 작음 | 250쪽 | 2만원
문의: 02)793-2070

이 책은 그리스도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종말론, 성찬례 등 신앙의 여러 주제들을 생태적 시각에서 두루 다루고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신학자인 성 보나벤투라 신학의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을 살펴보는 부분은 흥미롭다. 이 책은 생태 신학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도록 영감을 준다.

콘서트

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

때: 11월 22일(금) 19시 30분, 11월 23일(토) 14시
곳: 서울돈화문국악당
입장료: 전석 3만원 / 문의: 0506-050-0528
인터파크 티켓(1544-1555)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50% 할인

음악은 귀로 듣는 맛있는 음식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4 청년예술가도약지원' 프로젝트에서 전통 예술 분야 아티스트로 선정된 정겨운의 신작 '한 입, 한 소절'이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공연된다. 엄마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금 특유의 보듬어주는 듯한 소리와 배우의 세밀한 감성을 정교한 그릇에 맛있게 담아내고 있다.